

6/13/21

설교 제목: 모세가 사명받고 애굽으로 돌아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4 장 1-31 절

(출 4: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출 4: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출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5)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 4:6)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출 4:7)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출 4:8)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출 4: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 4: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출 4: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 4: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 4:18)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출 4: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출 4: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내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 4: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 4: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 4: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던더라

(출 4: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출 4: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출 4: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출 4: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출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1-17 절, 18-31 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7 절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위하여 부르는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여전히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표징과 이적을 체험하게 함으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18-31 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속사 중 출애굽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소명을 거부합니다.

(출 4:1)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40 여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서 조소와 비난만 받고 맥없이 물러나야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40 여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래로 400 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신 상태인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모세의 생각에 일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출 4: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출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  
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정차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것  
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잡을 때에는 뱀의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출 4:5)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  
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적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을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출 4:6)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출 4:7)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문둥병은 당시 불치병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애굽에서 문둥병자와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부정한 허물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표적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 4:8)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 번째 표적 즉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돌린 표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표적이지만 두 번째 표적 곧 문둥병을 치유한 표적은 세상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으로 이는 표적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우주 전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자연물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표적을 다 믿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이적을 주십니다.

(출 4:9)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Osiris)’가 특별히 내려준 것이라 여겨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일 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들과 애굽의 신들을 일거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보여 주셔도 모세는 아직도 소명에 응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하십니다.

(출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출 4: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또 거절을 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를 발하십니다.

(출 4: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렇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달변가인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론과 모세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면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출 4: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 4: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모세는 그 메시지를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받은 메시지를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 주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권능의 상징이 되어 향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결단을 합니다.

모세는 먼저 장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출 4:18)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하니라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이 애굽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말한다 해도 이방인인 장인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인도 이유를 묻지 않고 기꺼이 보내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장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도 속히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디안에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 재촉하십니다.

(출 4: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선뜻 애굽을 향해 출발하지 못했던 것은 40 년전 있었던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모르실리 없는 하나님께서는 ‘네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독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내 십보라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과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출 4:20)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차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출 4: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 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명시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으로 특권이 있으며 장자처럼 귀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장자로 부름으로 장차 이방인을 차자로 소명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막으면 당신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막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출 4: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 4: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아들에게 시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모세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방인인 부인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소명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 모세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출 4:2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출 4:28)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형 아론과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출 4:29)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출 4:30)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출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성경에서 인간이 행한 최초의 이적입니다.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00 년의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믿지 못하고 자신없어 하며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고 하시며 분명한 표적을 주셨음에도 계속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눅 11:29)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눅 11: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